

가정관리학의 아동분야연구 20년의 평가 — 실천적 연구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Child Studies for 20 Years:
How Much did the Studies Contribute to Society?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 수 이 옥

Dept. of Human Development & Family Studies
Associate Professor: Rhee, Oc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아동 분야 연구 주제의 분석 틀 | V. 논의 및 결론 |
| III. 분석 대상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hild research articles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in Korea for the last two decades and to evaluate the child studies in terms of how much the child research had contributed to society.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all the child research articles that had been published in the three representative academic journals of Korea were reviewed.

A framework to evaluate child studies was decided in accordance with objectives of the research, theoretical and practical. Theoretical studies imply ones dealt with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parent-child relations, development of measures and thoughts on children while practical studies mean the research on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child education programs, mental health of children, wellbeing of children, and child welfare policies.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in this study showed increases in numbers of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studies. Practical studies however, occupied just 4-12% of all the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last 20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researchers' low involvement in practical studies. Researchers in the field

* 이 논문은 한국가정관리학회 199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수정·보완후 사독을 거쳤음.

of child studies had most frequently conducted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 which were conducted based on theoretical knowledges from the West. For the practical child studies, there were some studies on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a few articles dealt with child welfare policies and wellbeing of children for two decades. Furthermore the major variables of the practical studies were analyzed and evaluated with respect to their contribution to society as well as socializing child related issues. Finally, the reasons of scholars' low involvement in practical studies and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to deal with practical child issues were discussed.

I. 서론

선구자적 의욕을 지닌 가정학자들이 가정학 연구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가정관리학 영역을 개척한 시대는 60년대 후반이었다. 비교적 실제적인 학문영역이 있었던 가정학을 배경으로 학문의 길을 걸었던 가정관리학의 개척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가정관리학을 전공한 제2 세대들은 가정관리학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학문의 효용성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 때문에 남다른 고뇌와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제1 세대들의 가정학과 가정관리학의 정체성 관련 연구들은 바로 가정관리학 제2 세대들의 의문에 답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80년대의 연구(문수재·윤복자, 1980; 문수재, 1986; 임정빈, 1987; 이연숙, 1989)는 주로 가정관리학의 실체적 성격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정관리학의 교과과정 연구(임정빈, 1990; 유영주·이기춘·문숙재, 1992; 이기영 외 14인, 1993)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관리학의 연구대상을 규정하여 학문적 구조를 명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80-90년대에 걸쳐 시행된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정체성 규명을 위한 연구들과 가정관리학의 교과과정 연구들은 가정관리학이 독립적이고 고유한 학문적 대상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독립된 여러 분야가 함께 묶여 있는 연합학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연합학문은 가정학과 가

정관리학자들이 주장한 종합학문이나 통합학문¹⁾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예컨대 1993년, 한국가정관리학회에서 주관하여 15명의 연구진이 참여한 교과과정연구(이기영 외 14인, 1993)는 가정관리, 가정경제 및 소비자, 주거, 가족, 아동 등 5개 분야를 공히 가정관리학의 영역으로 인정함으로써 가정관리학의 연합학문적 성격을 상기시켰다. 그리하여 이후 많은 대학에서 가정관리학의 일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과의 명칭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후 한국가정관리학회(1993)에서 공식적으로 분류한 다섯 분야는 각각 독립적 학문으로 여겨졌다. 특히 아동 분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문성, 연구대상, 사회적 시장성 등에서 분명한 영역을 가지고 비교적 신속하게 가정관리학으로부터 학문적 독립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정관리학에서 볼 때 아동 분야의 독자적 행보는 '일탈'에 가까울 정도였다. 실제로 아동분야 연구들은 심리학이나 교육학과의 관계가 가정관리학내 타 분야와의 관계보다 빈번하고 밀접할 정도였다. 이러한 경향에는 80년대 한국 사회 권력자의 아동정책²⁾에 대한 초법적 관심을 배경으로 한 아동 분야의 시장성이 큰 몫을 했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동 분야 연구자들이 처한 대학의 조건에 따라 아동학과 또는 아동가족학과로의 학과 명칭 개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아동분야의 아동학으로의 변화와 학과 명칭 변경 추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1) 서선희, 고영희, 옥경희(1995)의 통합학문의 의미 참조

2) 80년대 초부터 최고권력자 주변의 유아교육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말하는 것으로, 단적인 예로서 새마을 유아원이 교육이나 복지 관련부서가 아닌 내무부 관할이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동학자들의 연구 주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문의 시장성이 연구와 학문의 독자성을 유도하게 된 것은 가정관리학의 다른 분야소비자, 가족, 주생활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80년대 아동 분야 연구의 또 다른 배경은 이미 서구 사회로부터의 축적된 아동 연구의 성과들이 이론적 틀을 가지고 소개되었으므로 아동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는 점이다. 시장성과 분명한 연구대상, 이미 처방된 연구방법론 등에서 아동 분야는 학문의 정체성 논의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동분야의 시장성은 아동 연구를 격려하기에 충분하였지만 한국에서의 아동학의 정체성에는 문제가 되었다. 황금어장에 수많은 어선들이 몰려들듯이 이 아동시장에는 이미 다른 학문들이 그들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유아교육학은 교육학적 전통과 특히 정책적 관심 속에서 이미 많은 실제적 연구와 다양한 연구방법을 수립해오고 있었으며 대학 졸업생에게 유아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특권을 선점하고 있었다. 아동 연구의 또 다른 시장인 아동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분야의 정책 연구자들에 의해서 실천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유아교육학회, 발달심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및 한국영유아보육학회의 창립과 운영 주체가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자들이 아님을 보아도 이점은 분명해진다.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가 아동학으로 독립된 후, 유아교사와 영유아보육교사, 아동복지사와 아동상담사를 독자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가정관리학의 한 분야로서 시작된 한국에서의 아동학은 지난 20년 동안 독립적 학문 영역을 구축하는 듯 보였으면서도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와의 경쟁과 충돌로 인하여 또 다른 정체성 문제에 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아동학은 시장성 측면에서도 결코 용이한 지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동을 위한 사회적 기여부문-유아교사와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교육의 담당 역할에서 그 주도권을 타 학문에 양도했을 뿐더러 실제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사회정책적 연구에 참여하는 정도

나 학문적 정체성 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20년간의 아동 분야 연구가 보여준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서구에서 규정해 준 확실한 아동연구 분야는 학문의 성격상, 이론분야에 치중된 연구를 시행하는데 기여하였다. 예컨대 서구에서 발견된 아동발달특성들이 한국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특성들 인지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계속 수행되었고 현재도 수행중이다. 이처럼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가 이론 연구에 치중해온 반면 상대적으로 유아교육학과 사회복지학의 아동 연구는 실제적 적용 가능한 실천적 분야의 연구가 보다 많이 수행되었다고 여겨진다. 아동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을 비롯한 제 문제의 극복 방안은 아무튼 아동 분야 연구를 축적하는 것이다. 특히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가 사회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 측면에서 타 학문의 아동 연구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아동 분야의 실천적 연구가 축적되어 실제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학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적 연구가 축적될 때 아동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가정관리학에서 출발한 아동 분야 연구들이 지난 20년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제적 적용 가능한 연구를 어느 정도 시행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70년대 이후 가정관리학의 정체성 논의와 함께 가정학의 연구논문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황덕순 등(1995)은 양적 분석을 통해 가정학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에 한정하여 실천적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아동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난 20년간의 아동 연구가 사회적으로 기여한 분야를 점검하고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의 아동 연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의 연구 동향을 파악함은 아동학 연구의 균형여부를 진단하고 아동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연구경향이 아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아동 분야 연구 주제의 분석 틀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연구의 균형적 발전은 사회과학의 기본전제이다. 사회과학의 학문적 위상은 그 분야의 사회적 기여 부문이 있을 때 제고될 수 있으며 이론적 토대 없이 질적인 실천 연구가 수행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 분야의 실천적 연구의 평가에 있어서 이론적 연구의 주제와 관련시켜 실천적 연구의 주제를 분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동 분야의 연구 주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학문 분류체계, 교과과정 체계, 연구의 공헌분야 등, 여러 체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아동 분야는 '아동학'의 학문 분류체계에 따라 그 연구 주제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공식적인 아동학의 학문분류 체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1999년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설정중인 학문분류 체계 자료에 의하면 이론, 아동문화, 놀이, 아동발달, 청소년 발달, 부모교육, 유아보육, 방과후 보육, 장애아동 보육, 기타 분야로 나누어진다. 가정관리학회(1993)에서 연구한 아동 분야 교과과정 분류체계도 아동 연구의 주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가정관리학회의 교과과정 개발 연구의 아동 분야 교과과정 4 영역 또는 5 영역 분류³⁾를 따르면 아동 분야의 연구주제는 아동(청소년)발달, 부모교육, 아동복지론, 아동행동 연구, 아동문제 및 지도, 아동정신위생, 그리고 심리검사로 분류된다.

한편 아동 연구의 공헌 분야에 대한 논의(임인재, 1987)를 따르면 아동 연구는 크게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와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 관련 연구, 그리고 아동 교육 방법을 제시(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적 전략)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가 이론적 연구의 성

격입에 대하여 후자의 두 연구 분야는 실천적 연구 또는 응용 연구⁴⁾의 성격을 띤다. 여기서 이론적 연구는 아동의 제 특성과 발달 경향을 설명하고 관련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 부모-자녀 관계 유형과 관련 변인 연구, 아동의 제 특성 또는 이와 관련된 변인의 측정도구 개발 연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천적 연구는 아동의 문제 행동 교정, 치료 방법의 제안과 효과 제시 연구,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 아동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 정책 연구, 아동 관련시설의 현장 적용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아동학의 학문 분류 시간과 아동 분야의 교과과정 분류체계를 참조하고, 아동 연구의 공헌분야체계를 따라 아동연구 주제의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즉 지난 20년 동안의 아동 분야 연구의 주제들을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연구로 분류하고 각각의 연구 주제들을 교과과정과 학문 분류 체계의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여 아동분야 연구들 가운데 실천적 주제들을 다룬 연구를 이론적 주제를 다룬 연구와 비교해 양적으로 평가하고, 분석 틀에 따라 연구 주제들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주제의 분석 틀은 다음 <표 1>과 같다.

이러한 분석 틀은 아동 분야의 이론적 연구 주제와 실천적 연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론적 연구의 주제인 아동발달 특성은 실천적 연구인 아동정신 건강과 아동 교육 방법의 연구에 이론적 배경이 되며 역시 이론적 연구인 부모-자녀 관계 연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이론적 정보를 제공한다. 아동발달과 관련 변인의 측정 도구 관련 연구와 아동사상 연구 역시 아동복지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나 아동교육 철학과 목표 수립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는 연구이다.

3) 이 연구에서는 가정관리학이 4 분야로 분류될 경우, 아동 분야의 교과목은 아동발달, 부모교육, 청(소)년 발달, 아동문제 및 지도, 심리검사, 아동행동연구와 정신위생으로 구성하고, 가정관리학의 5 분야로 분류될 경우는 아동발달, 부모교육, 청(소)년 발달, 아동문제 및 지도, 아동복지론, 그리고 아동행동연구로 구성할 것을 추천하였다.

4) 이영석(1985)은 연구의 결과가 실제 생활의 과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를 응용 연구, 실천적 연구 또는 실용적 연구라 하였다.

〈표 1〉 아동 분야 연구 주제의 분류

1. 이론 연구의 주제	2. 실천 연구의 주제
1) 아동발달 특성과 관련변인 2) 부모-자녀 관계 3) 아동의 특성 또는 관련 변인 측정도구 4) 아동사상	1) 부모-자녀 관계 개선(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아동교육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3) 아동 정신건강 4) 아동 복지(Children's wellbeing) 5) 아동 정책(Child welfare)

Ⅲ. 분석 대상

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아동 연구들은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20년 간의 연구들이다. 특히 가정관리학 전공자들에 의하여 시행된 아동 분야 연구 논문들이 게재된 한국가정관리학회지와 대한가정학회지의 아동 분야 연구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 논문들은 대체로 교육학 또는 심리학 전공 연구자들의 아동 관련 연구들이 게재되지 않고 있으므로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의 추이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대상들이라고 하겠다. 이 밖에 1980년에 창간한 한국아동학회의 연구 논문들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학술지는 창간 초기에는 가정학 및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자들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후 한동안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들이 가장 많이 보고되는 학술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아동 분야 연구들이 가정관리학의 아동분야 연구라고 볼 수 없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술지는 본질적으로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를 게재한 학술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의 평가 대상에 이 논문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세 학술지 이외에 최근 들어 아동 분야 연구들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한국청소년학회지, 청소년복지학회지, 한국아동권리 연구 등의 전문학회 학술지가 발간되면서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술지들은 원래 학제적 학술지로 창간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아동연구의 일반적 경향

분석된 3개 학술지의 지난 20년 간 아동 분야 연구들의 양적 변화, 실천적 연구와 이론 연구의 양적 비교 및 전반적인 연구주제의 특성들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연구의 양적 증가

지난 20년간의 아동 분야 연구는 3개 학술지 공히 양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연평균 게재 논문편수는 90년대에 와서 뚜렷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한국가정관리학회지의 경우 80년대에는 거의 아동 분야 연구 논문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90-94년에는 연평균 약 3편, 95-98년에는 연평균 6편의 아동 분야 연구가 보고되었다.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아동 분야 논문 역시 80년대에는 연평균 4편이었으나 90-94년에는 연평균 8편,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24편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아동학회지에는 8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7편이, 후반에는 10편이 보고되었으며 90년대 초반에는 연간 22편, 후반에는 연간 29편이 게재되었다(〈표 2〉 참조).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의 양적 증가는 지난 20년간 각 학회의 학술지 발간 횟수의 증가와 아동 분야 연구자의 양적 증가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들어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를 독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동 연구의 양적 증가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아동 분야 연구의 양적 추이(연평균 발표 논문 수와 실천 연구논문수)

연구성격	아동 분야 연평균 논문수				실천적 연구 논문수			
	80~84	85~89	90~94	95~99	80~84	85~89	90~94	95~99
한국가정관리학회지	0	0	3	6	0	0	0	2
대한가정학회지	4	3	8	24	1	1	3	17
한국아동학회지	7	10	22	29	7	6	12	14
합계	11	13	33	59	8	7	15	33

2) 이론 연구와 실천 연구의 양적 비교

아동 분야 연구를 연구 주제에 따라 이론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적 연구로 이분하여 분석해보면 뚜렷한 양적 차이를 나타낸다. 연구 논문의 분석틀에 따라 아동의 발달 특성과 관련 변인을 설명하고 각 변인들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들과 아동사상 관련 연구를 이론적 연구로 규정하고 아동의 문제 행동교정과 치료,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를 주는 연구, 특수아나 소의 아동의 복지 문제를 다루면서 지도 방안과 정책을 다루는 연구, 아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을 실천적 연구로 규정했을 때, 지난 20년간의 아동 연구는 대다수가 아동발달 특성과 관련 변인을 규명하는 이론적 연구에 집중되었다.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80년대에는 겨우 2편, 90년대 초반에는

3편, 후반에는 17편 정도가 실천적 연구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가정관리학회지의 논문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논문과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모형 연구 등, 총 2편만이 지난 20년간의 실천적 연구 논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아동 분야 연구가 가장 많이 보고된 한국아동학회지의 경우도 실천 연구는 이론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80년대에는 13편이, 90년대에는 총 26편이 실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아동학회지의 아동 분야 논문 가운데 11.5%, 대한가정학회지의 아동 분야 논문의 11.3%, 한국가정관리학회지의 아동분야 연구의 4.4%가 실천적 주제를 다룬 연구이다. 아동 분야 연구의 80~90%가 이론적 연구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2〉 참조).

아동연구에서 조사한 아동들의 연령층별 논문 편수를 비교해보면 그 동안 아동 연구가 관심을 두었

〈표 3〉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별 연구논문 수

학 회 지	한국아동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합계	
	연도	80~84	85~89	90~94	95~99	80~84	85~89	90~94	95~99	80~84	85~89	90~94		95~99
연구대상														
1. 영아	2	2	6	3	0	0	1	6	0	0	0	0	20	
2. 유아	12	11	38	31	7	3	3	23	0	0	0	5	133	
3. 학령아동	11	25	53	53	5	3	12	58	0	0	6	19	245	
4. 청소년	1	3	13	7	2	4	6	22	0	0	3	15	76	
5. 기타(일반·부모)	8	12	23	25	3	6	14	35	0	0	5	10	141	

던 대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 대상 연구이다. 상대적으로 영아와 청소년 대상 연구가 매우 적다.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들이 주로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학과 (초등)교육학의 주요 연구대상들에 편중된 것은 전체 학문 영역에서 영아와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소홀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3) 연구대상과 연구 주제의 경향

아동 분야 연구들의 양적 변화를 기초로 아동 분야 연구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가장 많다(〈표 4〉 참조). 이는 국내에서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의 태동 시, 아동학의 배경이 ‘아동발달’과 그 관련 변인의 연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대한가정학회지의 아동 연구를 보면 1980년부터 84년까지 5년 동안에는 아동의 정서와 지적 능력 특성들에 대한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방식’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육태도 측정문항의 신뢰도 연구와 가정환경 자각점사의 타당화 연구를 시도한 것도 이시기의 아동발달 요인으로서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 분야 연구의 관심을 말

해준다. 실천 연구로서는 ‘유아발달을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 연구’가 유일하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의 5년은 아동의 인지 발달과 사회 심리적 특성이 연구되면서 특히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 문제가 자주 연구되었다.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나 가정환경 요인들에서 ‘형제관계’ 변수가 다루어졌으며 세대간 훈육방법의 비교 연구 등으로 아동발달 관련 요인이 보다 확대되었다. 이 시기 아동 연구의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의 발달과 특성’이 연구 주제로 등장했으며 비행 청소년과 학대받는 아동 등, 소외 아동이나 청소년이 연구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정상아동의 발달과 가정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종래의 아동 연구 경향으로부터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아동문제들에 대한 가정관리학의 아동 연구자들의 관심이 미약하나마 표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역할 발달에 대한 연구 주제의 등장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에 대한 연구는 90년대에 들어와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연구모형을 통해 시행되었다. 예컨대, 아동의 발달 특성 부문에서도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 흡연과 비행, 수줍음 등, 아동의 부적응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소수이긴 하나 보고되었다.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표 4〉 이론 연구의 주제별 논문 수⁵⁾

학 회 지	한국아동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합계	
	연도	80~84	85~89	90~94	95~99	80~84	85~89	90~94	95~99	80~84	85~89	90~94		95~99
1. 아동발달		10	29	59	70	10	7	9	27	0	0	5	15	241
2. 부모·자녀		6	11	14	21	5	7	14	36	0	0	6	7	127
3. 측정도구·연구방법		1	2	7	6	2	2	5	3	0	0	1	2	31
4. 아동사상		3	2	0	3	1	0	2	0	0	0	0	0	11
5. 기타		7	2	16	5	0	0	1	8	0	0	2	1	42

5) 연구 주제를 분류하면서 2개 이상의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해당연구의 중심 주제에 따라 한 영역에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5〉 실천 연구의 주제별 논문 수

학 회 지	한국아동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합계
	연도 주제	80~84	85~89	90~94	95~99	80~84	85~89	90~94	95~99	80~84	85~89	90~94	
1. 부모교육	1	1	0	2	0	0	2	4	0	0	0	0	10
2.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3	2	7	5	1	0	0	2	0	0	0	1	21
3. 정신건강	0	1	1	4	0	0	0	8	0	0	0	4	18
4. 아동복지	2	2	4	1	0	0	1	6	0	0	0	0	16
5. 아동정책	1	0	0	0	0	0	1	1	0	0	0	0	3

자녀의 발달과 제 환경간의 인과모형을 분석하는 연구와 적어도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양육변수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 시기의 연구들에서는 아동 발달 특성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이 보다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자기 효능감, 성취동기, 친사회적 행동, 역량지각 등의 개념이 지적 능력이나 학업성적, 정서 발달 등의 용어를 대신하여 연구에 자주 사용되었다. 아동 발달과 관련 변수의 증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한 양육태도 측정도구의 표준화와 타당화 연구를 위시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척도개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부모역할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성이해 및 정체감 측정을 위한 척도 등이 연구되어 보고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부모교육’ 연구가 자주 시행된 것은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 이론적 연구의 실제적 적용 연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그간 국내에서 연구되어 온 부모-자녀 관계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실천적 연구로서의 부모 교육의 실시 효과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아니다. 그 보다는 외국에서 이미 상당한 평가를 받은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들을 번안하여 적용한 연구이다. 이점에서 국내의 이론적 연구의 성과와 연결된 실천적인 부모교육 연구라고는 볼 수 없다. 한국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결과를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미흡한 것은 아동 분야의 이론적 연구가 아직 실천적 연구로 연결되지 못하는 수준에 있음을 말하

는 것이다.

90년대 아동 분야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아동양육의 사회화’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탁아 관련 환경과 정책 연구, ‘영유아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를 주장할 연구들이 영유아보육환경 실태조사, 취업모의 탁아서비스에 대한 요구 조사, 취업모의 자녀위탁 실태조사 수준 정도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적극적인 사회적 적용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매우 소극적 차원에서 탁아 현황이나 보육실태, 그리고 탁아에 대한 요구도 등을 조사한 수준이며 영유아보육법 제정이 1990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주제에 대한 가정관리학의 아동 연구는 그 수효도 적고 시기적으로도 아주 늦은 것이다. 가정관리학자들의 현실 참여에 대한 소극적이며 유보적인 태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학이나 사회학 등 타 학문 분야에서 취업여성 문제가 학문적 이슈로 다루어진 것이 70년대였으며 이들 학문영역에서 양육의 사회화 문제를 여성취업의 증가와 관련하여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는 실천적 정책 연구가 80년대에 보고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천학문인 가정학에 뿌리를 둔 아동 연구의 성과는 지나치게 늦고 일천한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 역할 참여가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연구 주제로 다루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최근의 아동 연구 논문 가운데, 특히 아동 복지와 정신 건강 관련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의 부적응, 아동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 탁아시설의 요구 수준을 벗어나 영유아보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들이 간간히 보고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특수아 문제, 비행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탁아의 질적 수준, 보육 환경,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들을 연구한 논문들이 최근에 보고되었다. 요약하면 아동분야 연구는 그 동안 정상아동의 발달 연구에서 부적응과 소외 아동 대상 연구를 통해 아동발달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로, 어머니와 자녀 관계 중심에서 부와 자녀관계를 포함하는 주제로, 취업도 증가 추세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요구도를 조사하는 수준에서 몇 편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의 연구로 매우 소극적 자세를 취하면서 서서히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실천적 연구의 주제 분석

그 동안 국내의 이론적 연구의 성과들은 당연히 실제적 적용으로 이어져 관련 연구가 보고되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 아동의 발달 특성 연구들은 아동발달을 지원하거나 건강한 아동발달에 필요한 조건들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난 20년간 빈번하게 연구된 부모-자녀 관계, 특히 양육태도 연구들은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로 응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동의 발달 환경 관련 변수의 측정도구 개발 연구들은 아동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신건강 및 아동 행동의 교정과 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와 관련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개관적 척도로 연구에 사용되는 실천 연구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아동 사상 관련 연구는 아동교육 및 부모교육 등의 이론적 배경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부모를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실천적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론적 연구에 비해 실천적 연구가 일천하며 그 내용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아동 분야의 실

천적 연구 주제를 이미 제시한 분석 틀에 따라 분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부모-자녀 관계 개선(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실천적 연구로서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부모교육의 효과 연구가 보고되었다. 부모교육의 긍정적 결과를 제시하는 STEP 프로그램의 효과(한국아동학회지 1988), 부모교육 경험(대한가정학회지 1991)과 P.E.T. 프로그램의 효과(대한가정학회지, 1995; 한국아동학회지 1997), 청소년 자녀와 부모 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7)과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대한가정학회지 1997;1998) 연구들이 시행되어 아동발달 환경으로서의 부모 역할 교육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유아기와 학령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뿐 아니라 장차 부모가 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진행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문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국내의 부모 자녀 관계의 이론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 또는 변안하여 적용한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자들의 독창적인 연구도 아니며 이들 P.E.T나 STEP 프로그램들은 국내의 유아교육 전공학자나 상담심리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미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단순히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후 부모의 태도에 대한 일부 긍정적 효과를 소개한 수준이어서 장차 한국 아동의 특성과 환경 특성,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와 양육관을 기초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에서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관리학의 아동분야 연구자들에 의한 부모 교육 연구는 부모의 자녀 교육 현장 참여나 부모 지원 프로그램 차원의 거시적 부모 교육을 다루지 못하고 부모-자녀 관계로서의 좁은 의미의 부모교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부모-자녀 관계 개선의 적극적 방안으로써 아동의 각종 생활

현장에 대한 부모의 참여와 지역사회 부모 지원 방안들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 참여나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 연구자들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2) 아동교육 정보 제공 및 아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

유아교육 전공자들에 의하여 그 동안 적지 않은 아동교육 관련 연구들이 전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나 교육프로그램 자료집으로 보고 되어왔다. 이에 비해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의 실천 연구로서 아동교육 관련 연구는 대단히 미미하다. 80년대에는 유아발달을 위한 프로그램(대한가정학회지, 1983), 유치원 교육의 효과(한국아동학회지, 1982), 유아의 수학개념에 대한 수업 방식의 영향(한국아동학회지, 1989)을 연구한 논문이 보고되었을 뿐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80년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 유아의 언어적 훈련의 효과(한국아동학회지, 1990), 유아용 도서개발과 도서의 교육적 효과(한국아동학회지, 1992),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 또는 VTR의 효과(한국아동학회지, 1993; 1991), 인지교육의 유아기에 대한 인지발달 효과(한국아동학회지, 1995), 유아교육 실제에서의 유아교육 교사의 신념과 실제 교수활동(한국아동학회지, 1997; 1992; 대한가정학회지, 1997) 연구가 보고되었다. 유아 대상 교육 이외에 청소년의 진로의식 발달에 대한 직업정보 제공 방식의 효과연구(한국아동학회지, 1991)가 청소년 교육에 적용한 유일한 교육 연구이다.

아동교육에 적용한 연구들은 아동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라기보다는 단편적 활동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다. 아동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처럼 희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자들이 지나치리 만큼 객관적 연구 방법(양적 자료 분석에 기초한 연구 방법)에 의한 변수의 관계를 찾는 이론적 연구에 가치를 부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3개 학회지의 연구들이 80-90년대에는 거의 양적 자료 분석방법에 치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정학적

연구 방법론의 상대적 편협성을 나타낸다. 유아교육과 청소년 분야의 연구자들이 비교적 많은 질적 연구와 내용분석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시도하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취하여 온 것에 비해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들은 집중적으로 객관주의 연구방법을 추구함으로써 실제적 프로그램 개발을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가 아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미흡했던 또 다른 이유는 아동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그 동안 부진했던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연령 단계별 발달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행되어 어느 정도 일관된 발달 특성과 발달 조건들의 연구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 동안 아동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별 특성과 발달 영역별 훈련이나 교육적 조건들이 심층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연구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대학에서의 현장교육 실험실인 아동교육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실천 연구가 용이하게 시행될 수 없었다. 아동 분야 전공 학부 학생들의 유아교사 자격증이 부여되었더라면 아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최근 가정관리 관련학과 졸업생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 부여로 인해 학과 부설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되고 보육 프로그램 연구가 차츰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실천적 연구의 확대를 위해 매우 다행한 일이다.

3) 아동 정신건강 관련 연구

직접 아동의 정신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와 아동의 행동교정 및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가 아동 정신건강 연구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 관련 정보나 청소년의 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제시하는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들도 이에 속한다.

국내의 아동 연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동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 관련 연구들이었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자아개념은 아동분야 연구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다루어져온 연구주제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

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아개념 연구를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80년대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는 유아원 아동의 부적절한 학습 행동수정 연구(한국아동학회지, 1987)가 유일하며 90년대에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련 정보'를 주는 연구들(한국가정학회지, 1996; 1997; 1998; 1999; 가정관리학회지, 1996)이 비교적 자주 보고되었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5; 1998)과 아동 스트레스의 국제간 비교(대한가정학회지, 1995),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 척도 연구(대한가정학회지, 1998)도 최근에 연구되었다. 아동의 정서발달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비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인형극 활동의 대인관계 사고에 미치는 효과 연구(한국아동학회지, 1993)를 제외하면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나 아동의 건전한 사회생활지도 관련 연구 등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으며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효과(한국아동학회지, 1992)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효과 연구(한국아동학회지, 1998) 두 편을 제외하면 아동이나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연구가 전혀 보고된 바 없어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 연구의 성과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4) 아동 복지(children's wellbeing) 연구

아동의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와 아동복지 실천 모형 개발 연구, 영유아 및 청소년 복지시설 관련 정보제공과 복지시설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대아동, 비행 청소년, 특수아, 가정내의 폭력에 노출된 우리사회 소외 아동의 실태와 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복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실천적 연구로서의 아동복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가정관리학의 아동분야 연구가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 특성을 규명하는데 집중하였으므로 아동복지 연구주제들은 그 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불리한 환경의 유아들에 대한 보상교육 대책(한국아동학회지 1980)과 빈민지역 아동의 생활환경(한

국아동학회지, 1981)이 80년대에 연구된 바 있으며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가 다루어진 것은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관리 현황조사 연구(한국아동학회지, 1987)를 제외하면 실천적 연구가 거의 없다. 90년 이후에는 생산직 취업모의 자녀보육 문제(대한가정학회지, 1990)와 도시 저소득층 취업모의 보육문제(대한가정학회지, 1995),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보육문제(대한가정학회지, 1995)등이 국내 보육 현황과 보육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를 밝히는 수준(대한가정학회지, 1996; 한국아동학회지, 1994)에서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보육의 질에 따른 아동발달 효과 및 보육시설의 평가 연구(대한가정학회지, 1998)와 보육 프로그램 연구(한국아동학회지, 1995)도 보고되었다. 취업모 자녀 문제 이외에 특수아동 복지 문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1999)가 보고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실태는 아동 분야 연구가 특수 문제를 지닌 아동의 복지에 관심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천 연구의 가장 보편적 주제가 아동복지 분야에 있는 만큼 앞으로는 아동보육이나 비행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적용 평가, 학대받는 아동과 가출 청소년 등 소외 아동의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5) 아동 정책(child welfare policy) 연구

그 동안의 아동 정책 관련 연구는 우리 나라 특수 아동 복지제도 연구(아동학회지, 1880)와 외국의 아동보육제도 연구(가정학회지, 1996) 두 편에 그치고 있다. 아동정책 연구야말로 아동연구의 사회화를 보증할 수 있는 주제인데도 정책 연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아동연구의 이론적 연구나 현장 적용 연구들은 결국에는 아동 정책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가정관리학의 아동분야 연구가 직접적인 아동 정책 연구를 축적할 필요성은 크다. 영아와 유아,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복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실제적인 사회적 기여를 함은 물론 이러한 정책 연구들이 이론과 현장 연구들을 선도함으로써 아동 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를 자극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동복지 정책의 국제간 비교 연구와 아동교육 및 복지 제도에 관한 분석 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 연구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영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휴직제도 개선 연구나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제도 관련 정책연구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들, 방과후 지도교사의 자격 문제, 각종 지역사회 프로그램 종사자나 프로그램 평가와 프로그램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아동복지 연구 과제이다. 청소년 비행대책관련 정책연구도 마찬가지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관리학 연구가 게재된 대표적인 3개 학술지의 아동 연구주제들을 대상으로, 주로 양적 분석에 의존하여 실천적 연구 주제들을 평가해보았다. 연구 내용별 질적 평가는 차기 연구에 기대하면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여기에서는 아동 분야의 연구 현황과 차기 연구 측면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점진적인 양적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서의 아동 분야 연구자 수요의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아동 연구의 양적 증가는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아동 연구 가운데 실천적 연구는 여전히 전체 아동 연구의 극히 일부분인 4-12% 만을 점하고 있어 실용학문인 가정학에 뿌리를 둔 아동 연구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아동 분야 연구들이 아동 관련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지나치리만큼 소홀했던 것이다.

실천적 연구의 주제별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비교적 빈번히 보고되었으며 미흡하나마 유아교육 관련 연구가 몇 편 시행되었다.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와 관련된

실천적 연구는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 몇 편과 보육시설 관련 연구 몇 편이 있을 뿐이다. 아동정책 관련 연구는 더욱 부진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연구들도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이론적 연구에 기초하여 시행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학문적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⁶⁾ 이론 연구의 축적과 실천 연구의 성과는 학문의 두 바퀴라고 볼 때 이 두 바퀴의 불균형 뿐 아니라 연결 축이 없이 두 바퀴가 각각 굴러가는 형상인 것이다.

지난 20년 간의 아동 분야 연구가 양과 내용 면에서 보여주는 실천적 연구의 부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그 동안의 아동 분야 연구들이 아동과 가족(부모)에 국한하여 연구주제를 다루는 전통 때문에 아동 발달과 아동 양육의 사회화에 소극적이거나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는 점이다.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에서는 일찍부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이슈화시켜온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3개 학술지에 보고된 연구들의 연구 방법론이 양적 분석에 의한 연구방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천적 연구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적용되며 때로는 매우 심층적인 질적 방법론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 수량적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해석의 객관성 등은 상당량의 아동연구 논문들이 취하고 있는 특징들이다. 저자의 자기 주장이 없이 보고된 논문들에 적당한 것은 현장에 적용되는 현실적 주제들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 의미의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적 연구인 경향이 있다.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의 방법론적 편협성은 유아교육학과 사회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 양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사실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심층 연구는 사례 연구나 질적 연구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아동 연구 20년 동안 한국 아동에 관한 正典 한 권 없는 우리의 현실은 주제의 연속성이나 포괄성 없는, 수량화된 변수 연구에 몰두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6) 한국의 아동을 설명한 지식을 한국의 아동에게 적용하는 실천연구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들어 국내의 인문사회 과학 분야들이 학문의 탈식민지화를 주창하고 있는 현실(민음사, 1999)과 같다.

셋째, 그 동안 아동분야에서 실천적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현장 실험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대학의 부속 어린이집이나 상담소는 실천 연구를 유도하는 실험실이다. 유치원과 복지관이 실험실습장인 유아교육학이나 사회복지학과 달리 처음부터 아동 관련 학과는 현장 실험실이 없었고 이 실험 현장을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자들은 교육과 연구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밖에도 아동 분야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자들이 유아와 학령기에 집중된 점도 주요 요인이다. 유아나 학령기 아동은 유아교육학과 초등교육학의 주요 실천적 연구 대상이다. 따라서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의 독점적인 실천적 연구 대상은 영아나 청소년일 수 있다. 그런데 3개 학술지의 아동 연구들은 이들에 대한 연구를 등한히 하고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휴직문제, 보육 문제, 청소년 쉼터 등의 아동시설 운영은 아동 분야의 고유한 연구 영역인데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를 접하면서 지난 20년 동안의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의 전통에 대해 재고할 시점에서 있다. 그 전통이란 "전형적"인 부모와 아동의 연구, 그것도 서구에서 수립된 이론과 개념을 소개하고 수량화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가지고 안전한 연구로 평가하는 전통이다.⁷⁾ 이제는 이러한 소극적(식민지적) 전통을 극복하고 한국 아동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여 아동 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야 할 때이다. 연구방법의 편협성도 극복하여 아동 관련 정보를 탐구하는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포용, 심층적 학문연구를 모색할 때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분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학문적 자세가 필요하며 아동연구의 주제별 전문학자가 생산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실천적 주제의 연구를 위해서는 공동연구 풍토를 위해 연구자들이 서로 협조하는 전통을 수립해야 한다.

아동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의 몫이다. 학회는 학술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연구의 방향과 질을 주도할 수 있

다. 이론 연구와 실천 연구의 균형도 학회가 선도하여야 한다. 이론 연구와 실천 연구 발간 호를 분리할 수도 있고 게재면 수를 분리하여 실천 연구를 격려할 수 있다. 일정 편수를 실천 연구에 할애함으로써 학회는 공동연구나 가정관리학의 제 분야를 통합하는 실천적 연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실천적이면서 통합적인 연구주제를 제시하는 일도 학회의 몫이다. 특히 학회가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것이 연구의 새로운 전통 수립에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대규모 학술대회 보다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소연구회의 운영을 권장하여 실천적 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 학회회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모든 학문 분야가 그렇겠으나 아동 연구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연구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학회의 회원들이 학회에서의 연구활동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여 연구 관련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것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학문 풍토를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아동 연구의 새로운 전통-실천적 연구로 사회에 기여하는 전통-을 수립하는데 가장 우선되고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노영주, 허정원, 서지원, 서선희(1990).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73-183.
- 문수재, 윤복자(1980). 가정관리 개념체계를 위한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18(4), 129-137.
- 문수재(1986). 미래의 가정학연구의 가능성. 대한가정학회지 24(2), 춘계학술대회 기조 강연.
- 민음사(1999). 정전없는 시대, 다시 시작하는 공부. 현대사상 3(3), 11-63.
- 서선희, 고영희, 옥경희(1995). 가정관리학의 방향과 교과과정 개발 연구: 통합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5-24.
- 역사비평사(1988).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안

7) 이러한 전통은 가정관리학의 아동 분야 연구뿐 아니라 해방 후 우리나라 인문사회과학의 전통이기도 한다(역사비평사, 1988 참조)

- 계와 전망. 박원순(편). 서울: 역사비평사.
- 옥선화(1990). 가정관리학과 구성에 관한 검토에 대한 토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205-208.
- 유영주, 이기춘, 문숙재(1992). 가정관리학과 교육프로그램개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서 제 91-8-104호.
- 이기영외 14인(1993). 가정관리학과 교과모형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219-230.
- 이연숙(1989). 가정학의 이미지개선과 가정관리분야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대한가정학회지 27(4), 235-238.
- 이영석(1985). 아동연구방법론. 서울: 창지사.
- 임인재(1983). 아동 연구. 서울: 양서원
- 임정빈(1987). 가정관리학의 전문성과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25(4), 172-175.
- 임정빈(1990). 가정관리학과 구성에 관한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99-204.
- 장명옥, 유영주(1980). 가정관리학과 교과과정 변경 및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 5권.
- 황덕순, 한경미, 홍은실(1995).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가정학회지 논문 내용분석: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33(3), 17-30.

〈분석대상 학술지〉

- 대한가정학회지. 1980년 1호-1999년 5호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0년 1호-1999년 2호
- 한국아동학회지. 1980년 1호-1999년 2호